

2020년도 지역인재 7급 국가공무원 수습직원 선발시험 합격수기

201661011 행정학과 김성연

0. 강조하고 싶은 말

지역인재 시험의 핵심은 PSAT(이하 피셋)¹⁾이다. 물론 시험의 전체 과정은 다음과 같다.

교내선발(1월)	피셋시험(2~3월)	면접시험(5월)
----------	------------	----------

그러나 후술할 이유들로 인해 교내선발과 면접시험의 중요성은 피셋시험에 비해 높지 않다. 지역인재 준비생들의 경우 무엇보다도 피셋 공부에 매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과정들은 각 과정 준비에 돌입해야하는 기간에만 집중해서 임하고, 그 기간 이외에는 오로지 피셋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하부터는 각 과정에 대해 상세한 소개이다.

1. 교내선발

본교의 경우 입학정원이 500명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 가능 인원은 최대 6인인데, 6인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는 근래에 없다.²⁾ 교내선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12월~1월 중에 '지원 서류 및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겨울방학 때 '교내면접'을 실시한다. 학교에서 안내한 기한을 엄수하여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① 지원 서류

지원서의 경우 단순히 형식적인 신원 확인 및 자격 조건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자격 조건이란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 한국사 2급 이상, TOEIC 700점 이상을 의미하는데, 이상 세 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증명서 및 TOEIC 성적표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토익과 한국사의 유효기간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공고문을 스스로 확인하고 유의하도록 한다.

② 자기소개서

2020년 접수 당시의 자기소개서는 크게 5가지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항목들에 대해 기술할 때에 유념해야할 사항이 있다.

1) 본인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500자 이내)

단순한 성장환경이나 가족사항보다는 자신이 대학 재학 중에 학업 및 취업과 관련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관련 대외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은 무엇이 있는지를 기술한다. 해외봉사, 전공 심화, 어학연수 모두 좋다. 단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직사회와 관련된 아르바이트 등 기간제 근로자 재직 경력이 있다면 포함시킬 수 있다. 필자의 경우 행정학과 학생회 부회장으로서 학생회를 운영한 경험, 멘토링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하여 후배 멘티들과 함께 활동한 경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학생 참관단으로 선발되어 경영평가에 다녀온 경험, 교내 독서 발표 대회에서 1위를 한 경험 등을 기술하였다.

2) 타인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경쟁력에 대해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500자 이내)

1번에서는 자신의 활동을 부각시켜서 드러냈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일관적인 장점을 기술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남들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큰 교훈을 얻은 바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더욱 좋다. 필자의 경우 2017년 및 2018년에 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4개월 간 개별주택가격 검증 보조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작성하였다.

1)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적격성평가)

2) ('16) 4인 / ('17) 2인 / ('18) 3인 / ('19) 1인 / ('20) 4인

3) 학창시절 또는 사회활동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했던 노력들과 그 과정에서 타인들과 마찰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500자 이내)

마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상대가 나에게 대해 착오를 가지고 있어서 갈등이 발생했던 경험 등을 기술하는 것이 무난하다. 이때 리더와 팔로워와의 관계 설정을 할 수 있다면 본인이 리더 혹은 팔로워로서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 필자의 경우는 마감기한의 시급성 때문에 과제를 해결할 때 있어 팀원들과 작은 마찰을 빚었던 경험을 기술하며 마찰의 원인 자체를 외부로 전환하고 해결방법에 대해 팀원들과 논의할 때 본인이 당시 리더로서 발휘한 조정 및 소통능력을 드러내었다.

4) 본인이 생각하는 국가관 (300자 이내)

문제 특성상 정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작성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우 민주주의의 의미를 서두에 언급하고, 이를 위해 참여와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이를 통해 맞춤형 행정 대응을 보이는 데에 있어 국가 존재의 의의를 둘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5)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500자 이내)

지원동기의 경우 막연히 직업의 안전성이나 신분 보장정보보다는 공무원 사회가 공익에 봉사하여 사회에 귀감이 되는 유기체라는 점이 잘 드러난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부양이 효과적으로 유도된 예시 등이 있다. 비전과 포부의 경우 지엽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겸손히 7급 공무원으로서 조직사회 내에서 팔로워십을 잘 수행하겠다는 측면으로 글을 지어나갈 수 있다. 다만 평소 관심을 가진 국가 부처가 있을 시 그와 관한 비전을 이야기하면 좋다.

③ 교내면접

교내면접은 1월 하순 중에 본교 강의동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총 3인의 면접관 중 2인은 본교 교수진, 1인은 외부 인사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교내면접의 진행 순서는 먼저 PT면접을 진행한 후, 바로 이어서 본인이 이전에 제출했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는 과정으로 이뤄져있다. 총 소요 시간은 약 30분이다.

1) PT 면접

PT 면접이란, 난제로 부각되는 특정 사회 현상에 관한 4~5장짜리 자료를 배부 받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30분 동안 1페이지(21줄) 분량의 보고서로 작성하고 발표한 뒤 이에 대해 질의 받는 것이다. 2020년 교내선발의 경우 면접 당일 총 4명의 지원자가 각각 '가맹사업 불공정 관행', '노인 인구 급증 대응', '치매국가책임제의 한계점', '외국인 관광객 감소'에 관해 PT 면접을 진행하였다. 자료를 읽고 보고서를 완전히 작성하는 것을 마치는 데까지 주어지는 시간은 30분이다. 처음 연습할 때에는 작성에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나, 사실 주어진 4~5장의 자료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이미 어느 정도 포진되어 있기에 이를 그대로 차용하여 개요화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정하는 것이 주요 관건이다. 발표시간은 약 5~7분 정도면 적당하다. 본인이 작성한 1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천천히 명확하게 정독하면서 군데군데 살을 붙여나가면 된다.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는 복사되어 3인의 면접관에게 미리 배부된다.

2) 자기소개서 면접

자신이 이미 이전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관해 질문을 받으므로 PT 면접에 비해 난이도가 낮은 편이다. 또한 편한 분위기에서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으므로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5월에 있을 실재면접과 가장 대비되는 교내면접의 특징은 지원자 본인의 신분이다. 교내 면접 당시에는 아직 학교 추천을 받은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항은 3인의 면접관이 본인에게 하는 말에 있어 무조건 겸손히 수긍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아는 척하지 말고 반드시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면접관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수정하겠다고 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내년에도 지원자 수가 미달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내면접은 그저 형식적 절차에 그침을 명심하여야 한다.

2. 피셋시험

지역인재 선발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피셋시험이다. 교내선발을 무사히 잘 거치고 나면 당해 지역인재 선발시험 경쟁률은 약 '3~4 : 1' 정도로 집계가 된다. 이중에서 최종합격 예정인원의 1.1배 정도만을 선발하여 실제면접시험을 보게 한다. 즉 면접 경쟁률은 '1.1 : 1' 정도이다. 따라서 면접에서 떨어질 확률은 매우 적고, 피셋만이 오로지 유일한 과제인 것이다. 피셋은 지원자가 공직에서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이상 3가지 영역으로 이뤄져있다. 그런데 2017년부터는 이에 더해 헌법을 추가하여 시험을 보고 있다. 헌법은 피셋 과목이 아니다. 그러나 7급 공무원에게 있어서도 최소한의 헌법 지식이 요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셋시험 날 1교시에 언어논리와 함께 시험을 보게 된다. 피셋준비와 관해서 학교에서 인강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의 경우에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고시촌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학원과 독서실을 다니면서 제대로 대비할 것을 추천한다. 근래 본교 지역인재 합격자의 절대 다수는 모두 실제로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였던 학생들이다. 지역인재 피셋 합격 커트라인은 어째서인지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Daum 포털사이트의 7gyun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인재 카페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를 조사하여 대략적인 커트라인을 공개한다. 엇나간 적은 사실상 전무하므로 이 카페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원하는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참고로 피셋은 과목당 40문제를 90분 안에 푸는 시험이지만, 지역인재의 커트라인은 역사상 한 번도 70점을 넘긴 적이 없을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한 문제당 3분씩 쓰면서 30문제만 풀어도 무방하다.

① 언어논리

1) 추천 강사

월비스한림법학원 소속 이나우 강사, 월비스한림법학원 소속 한승아 강사

2) 공부 방법

언어 파트와 논리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언어 파트를 마주하는 응시자들의 대부분은 수능 비문학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실제로 큰 틀에서 다르지 않으므로 매3비나 기타 독해 연습을 꾸준히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나 피셋공부의 시작과 끝은 기출문제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고 나면 그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대응할 때 어려움이 덜할 수 있다. 특히 언어논리의 언어 파트는 조금 더 엄격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추론의 가능 여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논리파트는 논리기호학의 영역으로 고등학교 수학에서 배웠던 명제 및 집합과 관련한 개념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일단 공부한 한 번 제대로 되면 언어 파트보다 오히려 더 쉽게 느낀다. 필자는 실전에서 언어 파트보다 논리 파트에서 시간을 더 단축하였다. 시험 운영의 경우, 총 40문제 중 매우 어려운 킬러 문제들은 버리고 30~32개 정도만 풀어도 괜찮다. 최대 34개 정도만 풀자고 생각해도 된다. 필자도 실전에서 34개만을 풀고도 합격에 전혀 문제없는 점수를 받았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도이기 때문이다. 피셋은 실수의 학문이다. 필자 역시 실전에 가서도 결국 군데군데 실수를 했다.

② 자료해석

1) 추천 강사

윌비스한림법학원 소속 석치수 강사

2) 공부 방법

언어논리와 달리 온갖 표와 차트만 40문제 내내 등장하다가 끝나는 과목이다. 문과보다는 이과에게 유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 유형은 정해져있기 때문에 문과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 필자의 경우 2018년에 첫 시험을 보았는데 자료해석 점수가 45점이었다. 그러나 올해 75점을 받았다. 2년 만에 30점을 상승시켰는데 사실 이는 오히려 느린 속도이다. 자료해석은 노력 여하에 따라 점수 향상 여부가 갈리는 노력형 과목이다. 문제 풀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석치수 강사는 이 분야에서 10년 가까이 1타 강사로 있었고, 필자는 그가 자료해석 문제 분석 및 효율적인 풀이와 관련해서는 업계 정점에서 내려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본 강사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철저히 훈련하면 지역인재 합격선을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부족함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신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

1) 추천 강사

윌비스한림법학원 소속 박준범 강사

2) 공부 방법

계속해서 윌비스한림법학원 소속 강사들을 추천하는 것은, 그들이 이 분야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수강생들을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박준범 강사의 경우에도 10년 넘는 기간 동안 독보적으로 상황판단 1타 강사의 자리에 올라 있다.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는 풀이 방식을 통해 접근하고 유형별로 다양한 공략 방식을 갖고 있으며 무엇보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매우 탁월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④ 헌법

1) 추천 강사

윌비스한림법학원 소속 김유향 강사

2) 공부 방법

헌법은 피셋과목이 아니다. 피셋은 파악과 응용이 주안점인 반면 헌법은 이해와 암기가 절대적이다. 또한 헌법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로, 60점만 넘으면 되는 P/F 평가방식을 따른다. 헌법은 크게 조문·부속법령·판례 이상 세 부분으로 이뤄져있는데 본 헌법 시험은 다른 헌법 시험³⁾들과는 다르게 헌법 조문과 부속법령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기는 하다. 2017년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조문의 비중이 상당히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판례의 비중이 대폭 늘어나 많은 수험생들이 헌법에서 탈락했고, 2019년에는 가장 까다로운 부속법령의 비중이 커지면서 사실상 다른 헌법 시험들과 비교해도 수준이 크게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격상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는 다시 부속법령의 지분을 줄이고 조문을 늘렸으며 판례 역시 어렵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되었다. 헌법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출제 경향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세 부분 골고루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필요한데, 김유향 강사의 경우 너무 지루하지 않게 암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이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 좀 더 편안한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의를 통해 파악 가능하다. 피셋시험 4주 전부터는 헌법 반복 암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3) 국가직 7급 공채, 법원직 9급, 법원 행시, 변호사 시험, 국회직 8급 등

3. 면접시험

앞서 기술한 교내면접과 구분하기 위하여 이하부터는 면접시험을 '실제면접'이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다. 피셋과 달리 면접은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역량을 표현한다. 물론 문제를 풀기 위해 펜으로 답안 작성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말과 행동으로 자신의 공직적합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면접은 자신감과 태도가 실력 못지않게 중요한 시험이다. 그래서 피셋을 잘 하는 사람들 중 면접에서 유독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 수 존재한다. 즉 답변의 논리성과 정확성이 핵심이지만, 답변의 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인재 실제면접의 경쟁률은 대개 겨우 '1.1 : 1'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면접관들은 당락을 가르기 위해 '일을 같이 하기 싫은 사람'을 떨어뜨리는 선에서 평가를 마무리한다. 따라서 너무 튀거나 우수해보이려는 모습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며, 적당한 선에서 무난히 일을 잘 따라할 것 같은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면접시험이 모두 끝난 후에 면접관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험이다. 이를 늘 유념하도록 한다.

① 추천 강사

1) 프라임법학원 이진우 강사

매해 가장 많은 이들이 선택하며 가장 오랜 강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역인재 면접' 하면 모두 이진우를 떠올린다. 그래서 스터디 조편성이 원활하다는 강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타 지역 학생들의 실력 확인 및 자신의 약점 보완과 장점 개발에 도움이 된다. 가장 큰 메리트는 이 학원에서 만날 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결국 여러분들의 지역인재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미리 인연을 맺고 친목을 도모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프라임법학원의 경우 강사진이 4~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시각에서 응시자들을 평가하는 것이 장점이다. 각 강사마다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간혹 상이한 부분도 있으나 대개 지적을 받는 부분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인지하고 두 달 정도 되는 면접 준비기간 동안 시간은 충분하므로 반드시 개선해나가야 한다. 필자 역시 처음에 인상이 다소 냉철해 보이고 목소리가 낮아 자칫 지루할 수 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으나, 종국에는 매우 개진하여 학원 내 자체 최종 면접시뮬레이션 평가에서 우수평정을 받았다. 프라임법학원은 많은 양의 과제를 부여하기에 반강제적으로 성실히 면접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 해커스 피티윤 강사

2019년부터 지역인재 7급 면접 시장에 뛰어들어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강사이므로 간략히 소개한다. 이 강사는 본래 국가직 7급 및 지방직 9급 공채, 5급 공채 등 수많은 면접 강의에서 이미 명성을 쌓은 바 있다. 필자는 이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지 않았으나, 프라임법학원에서 꾸려준 스터디에 함께 참가한 스터디원들 중에 해커스 피티윤 강사의 강의도 수강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자료를 조금 받아 본인의 면접준비에 보태본 경험이 있다. 물론 두 학원을 모두 다닌다는 것이 시간 관리에서는 쉽지 않다. 그러나 2020년 실제면접에서 나온 PT문제가 피티윤이 예상한 문제였고, 문제 양식 역시 피티윤의 자료와 매우 흡사하였으며 전체 실제면접 시간인 30분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 피티윤이 제시한 팁 역시 효과가 컸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 강사를 추천 목록에 기입하는 것이다. 다만 해커스가 아직 진입 초기라서 그런지 수강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원이 꾸려주는 스터디가 따로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 두 학원의 설명회에 모두 참여하여 선택할 수도 있겠고, 굳이 하나만 다녀야 하겠다면 필자는 그래도 프라임법학원을 권하는 바이다. 인재 풀이 넓은 것이 서로 간에 교감하고 시너지를 불어넣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4. 기타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다 담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 짧게 언급하도록 하겠다.

① 피셋시험

1) 문제 풀기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올해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이다. 이미 풀어보았다면 풀지 않은 연도의 세 과목 기출문제를 풀도록 한다. 이것을 ‘노베이스 점수’라 칭한다. 노베이스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예컨대 특정 과목에서 50점 이하를 맞았다고 해도, 거기서 20점을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실제로 필자의 경우는 30점 가까이 올린 바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위 ‘피셋형 인간’이라 하여 이런 적성시험을 태생적으로 잘 푸는 사람들도 있으나 노력으로 극복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5급 공채라면 몰라도, 지역인재의 커트라인은 올해 평균 65점에 불과할 정도로 높지 않기 때문에 평균 65점을 맞는 것은 웬만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물론 어디까지나 열심히 노력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피셋은 어느 정도 실력을 올리고 나면 실수와 긴장을 줄이는 것이 절대적인 관건이다.

2) 강의 듣기

월비스한림법학원의 석치수 강사는 본교 재학생들에 대해 지원을 하는 데에 결코 아낌이 없으므로 석치수 강사를 통해 학원 강의를 부분 무료로 수강할 수 있고 커리큘럼을 착실히 밟아나갈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기본 강의’와 ‘모의고사 강의’를 반드시 수강할 것을 권한다. 언제나 본 강사와 연락하여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자신의 수준이 낮다고 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된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이런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 피셋은 기존의 공부들처럼 실력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늘지 않다가 일순간에 어느 정도 확 늘어나는 계단형 진행을 보인다. 그 진행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석치수 강사가 분명히 양질의 도움을 제공할 것이므로 여러분은 그저 우직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최선의 행동이다.

② 면접시험

필자는 면접시험을 치르기 전까지는 멘탈관리가 유독 피셋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생각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지만, 멘탈관리는 사실 면접시험에서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본다. ‘1.1 : 1’이라는 다소 의아한 경쟁률 속에서, 설마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충 준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너무 과하게 하기에는 면접시험의 특성 상 다뤄야 하는 부분이 산더미이다. 그 중도에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갈피를 잃지 않느냐가 의외로 관건이 된다. 필자는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면접스터디에 나가서 스터디원들과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소하곤 했다. 프라임법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스터디원들은 실제면접시험까지 모두 마치고 나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된다. 처음엔 어색한 생면부지의 사이겠지만 나중엔 끈끈한 우정을 갖고 소통하는 형제자매가 된다. 필자 역시 스터디 단톡방이 아직도 활성화되어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만나는 소중한 직장 동료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실제면접 경쟁률은 매우 낮기에 웬만하면 스터디원들 중에서도 탈락자가 없다. 그러므로 한 번 뭉친 그 모임은 끝까지 가게 된다. 좋은 사람도 있고 별로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하나의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훗날의 직장동료와의 교분을 쌓는 경험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